

마음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기초적 탐색

안관수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using Maumgram

Kwan-Su An
Dept. of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마음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마음그램’이란 기존의 분석심리학 및 유식학의 마음구조를 기반으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자리(탐닉형, 분노형, 경쟁형, 이기심형)로 유형화하고, 이를 위한 인성교육의 단계적 구조를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마음유형별 프로그램의 설계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을 통해 자아의식의 원인을 자각하는 ‘발견’의 단계이며, 두 번째는 부정적인 욕구를 긍정적인 욕구로 조절하는 학습과정인 ‘전환’단계, 세 번째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타자와의 ‘관계’지향의 단계이다.

주제어 : 마음그램, 인성교육, 발견, 전환, 관계지향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 principle frame and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using Maumgram. Maumgram is said to clearly illustrate step-by-step structures of character education, for which the human mind is classified as four types(indulged type, rage-type, competition type, selfishness type)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analytical psychology and Yogacara Thought. The design of the mind type program is composed of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the ‘discovery’ step to awaken the cause of self-consciousness through observation, and the second is the ‘conversion’ step. Learning process to control the negative desires in a positive desire, and the third is the ‘relationship’-oriented step to promote a sense of community with other people.

Key Words : Maumgram, Character Education, Discovery, Conversion, Relationship-oriented

1. 서론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복지수라

는 것이 있다. 유엔이 발표한 조사(2015)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47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6.

Received 31 October 2016, Revised 13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kwan-Su An

(Dept. of Educational Won Kwang University)

Email: Ksan@wonkw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낮은 수준이고, 내면은 공허하다는 반증이다.

한국인의 정신적·정서적 공허함의 기저에는 신자유주의의 텃이 깊게 깔려있다. 신자유주의의 텃에 걸린 성과 지향적 사회가 인간을 과잉긍정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아 피로사회(한병철, 2012)로 만들고 있다[1]. 이와 같은 사회는 경쟁에서 밀린 사람에게 심각한 ‘마음의 병’을 잉태시킨다. 그러므로 승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성취라는 환영에 휩싸여 자신의 주체적 삶을 영위할 마음의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 이를 얻기 위해서 독일의 빌헬름 슈미트(W. Schmid)가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의미체험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적 관계맺음인 ‘자기강화’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2]. 피로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자기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음치유프로그램의 개발, 즉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 행복은 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얻을 수 있다. 균형잡힌 마음은 “탐진치(貪嗔痴)로 가득 찬 일상적인 마음을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3]. 한 마디로 지금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이를 “거듭나기”(twice born)라고 표현했다[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음그림’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음그림(Maumgram)이란 기존의 분석심리학 및 유식학의 마음구조를 기반으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자리(탐닉형, 분노형, 경쟁형, 이기심형)로 유형화하고, 이를 위한 인성교육의 단계적 구조를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마음의 중층구조

“인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 가능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인성을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왜 이 수업을 받는가?”[16]

인성 형성의 기저는 마음이다. 마음의 외재화된 특성

이 곧 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 마음교육인 것이다. 마음에 관한 논의가 교육과정 이론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른바 형식도야이론에서이다[5]. 형식도야이론은 회랍과 중세를 거쳐 체계화된 전통적 교과로서의 7자유학과의 도야적 가치를 옹호해 온 최초의 교육과정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교과란 마음의 능력을 도야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과를 통하여 길러진 마음의 능력은 다시 삶의 사태에서 인간백사를 처리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6]. 그러나 진보주의 교육학자 듀이는 마음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 자유교과의 가치를 부정한다. 그는 전통교과를 배움으로써 마음의 능력이 길러진대거나 그렇게 길러진 마음의 능력이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듀이에 의하면 마음은 삶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길러진다고 보았다.

듀이가 전통적 자유교과의 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형식도야이론을 부정하였다면, 반면에 허스트는 전통교과의 가치를 옹호하는 방향에서 형식도야이론을 문제 삼고 있다. 허스트에 의하면, 교과교육을 통해 이른바 ‘합리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형식도야이론에서 말하는 부소능력의 형태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공적 언어에 담긴 분화된 개념구조, 즉 지식의 형식을 배우고 거기에 입문함으로써 획득된다[6]. 허스트는 마음을 문명된 삶의 형식으로서의 공적 전통에 입문됨으로써 획득되는 개인의 지적 안목과 태도로 규정한다. 그들의 경우, 삶은 극복해야 할 문제나 장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해하고 향유하고 감내해야 할 인간의 ‘삶의 조건’(predicament)이다. 교과교육은 곧 그와 같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향유하고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상이한 관점과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6]. 또한, 영국의 교육철학자 피터즈도 교육의 목적에 관한 개념분석과 교육내용의 가치에 관한 정당화 논의를 통해서 듀이의 수단-목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과로서의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가치는 선형적으로 정당화되는 점을 주장하였다[7].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적 기능으로서의 마음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마음으로서의 형이상학적 마음으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양자는 중층구조

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경험적 마음과 형이상학적 마음이 중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의 마음이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는 뜻이다[6].

마음의 중층구조에 관한 논의는 피터즈의 선형적 논의가 도외시한 실제의 형이상학적 지위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층구조에 관한 논의는 실제로서의 형이상학적 마음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적 원리 안에서 운동하는 경험적 관계를 새롭게 설명한다[6].

마음의 중층구조에 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심성함양의 의미와 그 방편으로서의 교과서의 특이한 지위를 설명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중층구조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심성함양은 아래층의 경험적 마음이 그 절대적 표준으로서의 위층의 형이상학적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경험적 마음이 형이상학적 마음을 회복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중층구조 이론에 의하면, 그 경로는 곧 지식으로서의 교과이다. 이 경우, 교과, 즉 지식이 심성함양의 통로가 되는 것은 지식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성격과 관련이 있다. 우선, 지식은 아래층의 경험적 마음,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외적 대상을 다룬 결과로 갖게 되는 마음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와 동시에 그 지식은 또한 위층의 형이상학적 마음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 마음은 개인의 마음이 바깥 사물을 다룬 결과로서 지식을 획득할 때 바로 그 지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뜻이 된다. 결국 형이상학적 마음은 그것의 표현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은 형이상학적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6].

3. 분석심리학의 마음구조

인성에 관한 심리분석적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람의 정신은 마치 빙산처럼 표면과 심층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표면에 의식적인 정신상태가 있고, 그 밑으로 전의식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낼 수 있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과 같이 의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밑으로 보통 환경에서는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와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압력과 영향을 행사한다[7].

그 후 프로이트는 이와 같은 개념을 기초로 인간의 의식구조에서 이드, 에고, 초자아라는 세 가지 주요한 체계를 발견하였다. 이드는 욕구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본능적인 충동을 말하며, 에고는 현실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외부세계와 이드 사이를 조종한다. 그리고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유아기 때 얻게 되는 에고의 특수한 부분이다.

인성형성에 있어서 무의식의 개념을 처음으로 일깨워준 사람은 프로이트였지만, 그 무의식의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융(Carl Jung)이었다. 융에 의하면 인성은 세 가지 분리된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체계인 자아(ego),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는 의식적인 마음이며, 우리가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의식하는 기억, 경험, 생각 및 느낌 등으로 되어 있다. 자아는 외부세계에서 오는 갖가지의 자극들 중에서 선택하여 지각하도록 한다. 인간의식의 상당한 부분은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들 태도 중의 어느 하나가 우세하여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성격유형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세하지 못한 태도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 무의식의 부분이 되므로 그 속에서 여전히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융에 의하면, 사람은 생후 3-4세 전후에 자기 신체와의 동일시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일련의 기억에 의해 의식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9].

융은 인성에 있어서 의식부 보다는 무의식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무의식부 중에서 보다 상부에 있는 것이 개인적 무의식부인데, 본질적으로 의식 속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나 쉽게 의식부로 떠오를 수 있는 자료의 창고 혹은 저장소이다. 이 자료는 억압된 혹은 망각된 기억과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적 무의식의 한 가지 중요한 국면은 콤플렉스(complex)인데 그것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정서와 기억 및 사고의 무리이다. 어떤 의미에서 콤플렉스란 전체 성격 속에 있

는 보다 작은 성격이며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콤플렉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며, 어떤 가치와 흥미와 동기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한다.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의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 기억 흔적의 저장소로서 전승된 무의식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인간의 진화발달의 정신적 잔재이며, 이 잔재는 많은 세대를 거쳐 반복된 경험들의 결과가 축적된 것이다. 이런 집단적 무의식은 현재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며, 따라서 인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은 무의식적 내면세계의 의식화 작업이다. 그리고 그 치료적 목표는 적응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되도록 하고, 무의식적인 충동과 초자아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도록 자아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10].

4. 유식학의 마음구조

유식(唯識)이라는 말은 오직 식, 즉 오직 알 뿐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보통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식(識)에 의해 조각되어 나타난 표상일 뿐이다. 우리는 동일한 대상을 주관적 인식에 의해 제각각 알고 다르게 경험한다. 유식학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조차 서로 다르게 알고 다르게 경험하는 건 근본적으로 자아의식 때문으로 본다. 자아란 결국 모든 사람이 대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한 과거 경험이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상황과 대상을 서로 다르게 알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경험과 얹어 모두 유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알고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식을 모르면 상대를 오해하고,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한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체험이 아닌 판단과 편견에 의해 갈등, 미움, 질투, 우월감, 열등감 등 갖가지 건강하지 못한 심리상태가 유발된다[11].

원효의 「대승기신론」은 마음이 모든 존재를 포괄하고 있는 궁극적 실재, 즉 진여(眞如, 한국불교전서, 1998:744)라 보고[12], 이 마음이 모든 존재를 통섭하며, 우리가 실재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대상은 마음이 구성한 결과로서 마음의 작용 없이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효는 마음은 궁극적 실재인 진여와 경험적, 현상적, 개별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중구조성[13] 혹은 중층구조[14]로 이루어져 있다. ‘진여’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이면에 있는 궁극적 실체이고, 모든 존재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정한 형태를 지니게 되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경험의 수준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킬 궁극적 이념인 것이다. 현상적 마음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느낌·사고·판단·행동을 생성하는 주체로서 이러한 생성을 통해서 진여로 돌아가는 즉 진여 실현의 통로인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같지 않으면서 둘이 아닌 중층으로 서로 융통하는 하나의 마음인 것이다[15].

마음의 구성과정은 분별성과 의타기성에 의해서 나를 포함한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을 낸다. 여기서 분별성은 자신의 주관성을 중심으로 사물에 대하여 분별하고 차별적으로 지각하는 원리이다. 의타기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의 의존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원리로, 마음 안에 내가 주체로 성립함에 의해서 대상이 있게 되고, 대상이 있게 됨에 따라 그를 상대로 한 감정과 사고 작용이 일어나 판단과 결정이 뒤따르고 행동 결과가 존재하게 된다. 이 두 원리에 의하여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 인식의 기본구조인 주체와 대상의 주·객으로 구분하고, 이 주객구분의 틀 안에서 나와 주변을 대상으로 한 분별적 판단을 하고, 감정으로 집착하고, 동시에 이를 개념과 언어로 헤아리고 차별하여, 행동을 결정하고 행하게 되어, 그 행동 결과가 존재하게 된다[15].

마음의 구성과정은 나의 인식은 마음 ‘밖’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구성된 것으로 동시에 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진다. 마음 안에서 생각이 생멸하는 것에 대해 원효는 「기신론별기」에서 마음의 생멸은 사실적 생성과 소멸과는 다른 것이라 하였다[11]. 즉 마음의 생멸은 의타기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현상적

마음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아뢰야식(저장식)은 개개인의 근본식이자 개개인의 존재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경험, 삶의 총체로서 마음의 가장 심층에 자리한 무의식의 영역이다. 타자와 개인을 분별하는 기능으로서 정서(감정)의 뿌리로 작용하는 자아의식(말나식)과 더불어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가 행한 정신적·신체적 행위들은 모두 저장식에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었다가 조건을 만나면 의식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저장식을 다른 말로 종자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자처럼 저장된 저장식은 어떤 조건이 맞아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거 경험의 형태로 기억 속에 저장된 아뢰야식의 종자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을 만나서 새롭게 생겨난다[11].

유식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활동은 그러므로 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를 동력인으로 유동적,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 종자는 인간의 행동이나 말, 생각이 개인의 경험에 의해 상당부분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업종자는 마음공부나 수련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유식학은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지만, 현재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갖게 된다. 과거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변화 가능성을 닫지도 않는다[9].

저장식의 종자와 현재의 조건이 만나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업(業)을 정화시킬 수 있다. 설사 이전에 불선(不善)한 정신적 육체적 업을 지어서 저장식의 종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 재생되는 순간, 자각을 하게 되면 반응의 강도는 약해진다. 반대로 자각이 없으면 반복행위를 통해서 더 강화가 된다. 따라서 유식치료에서 치유는 저장식의 종자가 인연을 만나서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그것을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그 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11].

불교의 유식학과 융(C.G. Jung)의 분석심리학의 공통점은 마음의 치유를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찰 혹은 깨달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마음의 병은 자아의식 또는 자아의식의 기저를 형성하는 생각, 감정, 욕구의 지배로부터 놓여날 때, 비로소 문제 또는 증상으로

부터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

유식에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근본 원인을, 말나식이 아뢰야식(종자식, 심층식)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자아로 착각한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의식적으로 인식되기 이전의, 본능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유식에서의 말나식(자아의식)은 항상 아치, 아견, 아만, 아에 등의 네 가지 심소를 비롯하여 근본번뇌, 탐욕, 성냄, 어리석음, 거만, 의심, 악견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성격의 식이다. 반면 용의 자아의식의 개념은 오히려 정신적인 성숙이나 무의식의 의식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의식은 의식적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 조건인 동시에, 무의식적 심리내용을 표출시킬 수 있는 주제로 본다[9].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외부환경에 지나치게 잘 적응할수록 무의식(아뢰야식, 심층식)은 자각하지 못한다. 외적 인격(페르소나)과 마찬가지로 내적 인격(무의식)도 엄연한 자기 자신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아뢰야식의 ‘종자’와 용의 집단무의식의 ‘원형’은 무의식을 낳는 일체의 힘으로 본다는 점이다. 용의 분석심리학에서는 부분인격으로서의 자아는 의식을 소유하고 있어 자신의 의지대로 보다 자유롭게 정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식의 표상 능력이나 행동은 모두 무의식적 원형적 심상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간의 공통점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의식보다 심층식(아뢰야식, 무의식)에서 찾고 있다[9].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인간 행동의 부정적인 식을 야기하는 자아의식이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아로 고착된 자기 행위가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그 원인의 자각과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그 자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정서(감정)의 뿌리로 작용하는 자아의식은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인간 의식(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스스로 긍정적 자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마음그림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간의 마음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단지 인간의 마음을 구조적으로 명료화하는 시도 일 뿐이다. 인간의 마음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하며 어느 한 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수시로 변하지만 주로 혹은 자주 머무는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마음자리가 그 사람의 성품, 성향 또는 인성을 나타낸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불교 교리에서는 사성제(四聖諦)에서 찾는다. 사성제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苦, suffering), 집(集, the origin of suffering), 멸(滅, the cessation of creating suffering), 도(道, the path that leads to the cessation of creating suffering)의 네 가지 방법을 말한다. 고성제의 핵심은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데에 있다. 그런데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ego)'가 존재한다[11].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참된 '나', 즉 그러한 괴로움을 초래한 자아의식의 원인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는 것,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나(ego)'임을 자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저장식의 종자와 현재의 조건이 만나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자각하는 (알아채는) 일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괴로움의 근본 뿌리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선업의 종자를 점차 강화할 수 있다. 치유는 무의식의 영역인 자아의식과 저장식의 종자가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그것을 자각하고 유지하는 노력이다. 이와 같은 자각(알아채림)의 과정이 마음치유의 과정, 즉 인성교육의 과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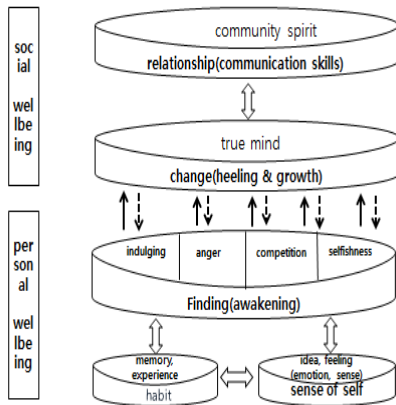
인성은 본래 정체성과 유동성을 포함한 양면성을 지닌 개념이다. 인성은 일생을 통해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습성으로 굳어지고, 생각과 정서 등이 개인의 자아로 고착되기 때문에 정체적이다. 또한 인성은 개인이 다양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교육에 의한 변화가 열려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러한 인성이 지닌 양면성 때문에 고착화된 개인의 자아는 참된 인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인간의 고통, 불행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수시로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고 비교심과 경쟁심 그리고 이기심이 생겨나지만 이러한 마음의 주체가 '나

(ego)'임을 발견하고 반복적인 마음조절 훈련을 통해 참된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우리는 '인성교육프로그램' 혹은 '마음조절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나(ego)'의 행위는 인성교육을 통해 참된 인성의 종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환(轉換)의 가능성이 있다. 괴로움의 근본 뿌리인 나(ego)'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의해서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 혹은 인성이 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마음이 주로 머무는 자리에 의해 고착화된 자기 행위에 대한 전환의 학습과정인 것이다. 마음은 인성교육에 의해서 무의식의 영역인 자아의식과 저장식의 종자 변화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자기 행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음, 즉 개인의 업종자는 이처럼 교육에 의해서 유동적,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마음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주로(자주) 머무는 마음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네 가지 (탐닉형, 분노형, 경쟁형, 이기심형) 마음자리로 유형화하고, 인성교육의 단계적 구조를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것을 '마음그림(maumgram)'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간 행동의 부정적인 식을 야기하는 자아의식이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 그러한 자아의식으로 인해 개인의 자아로 고착된 자기 행위가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이를 자각하고 알아채는 끊임 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찾는 건강한 자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머무는(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마음그림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 혹은 '마음치유프로그램'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세친보살은 『유식 30송』에서 인간 육도의 핵심마음을 '지옥형'(공격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마음), '아귀형'(끝없는 욕망의 마음), '축생형'(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마음), '아수라형'(질투하고 경쟁하는 일에 중독된 마음), '천국형'(자아의식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 마음), 그리고 '인간형'(자아추구를 향한 갈망, 열정이 있는 마음)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11]. 인간은 본래 수많은 인간의 마음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마음그림에서의 마음의 유형은 세친보살의 육도와 유사하게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욕구가 자아의식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머무는 마음자리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Fig. 1] Structure of Maumgram

이와 같이 자기강화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마음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인간의 심리를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우선, ‘이기심형’은 심리학의 지(知)에 해당하는 마음 유형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이해나 관점이 치우친 상태로 대인관계를 할 때 ‘이기심형’으로 분류한다. 이타심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분노형’은 심리학의 정(情)에 해당하는 마음 유형으로 인간의 감정 및 정서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인간이 자기 욕구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대인관계 또는 자신에게 해를 주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마음상태를 ‘분노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노형도 대자적 분노와 대타적 분노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탐닉형’과 ‘경쟁형’은 심리학의 의(意)에 해당하는 마음유형이다. 인간의 의지는 개인의 습관과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긍정적인 의지력의 결핍으로 인해 욕구를 충족하는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이 굳어져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탐닉형’으로, 자기존중감이 결여되어 자기수용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가려는 마음으로 자기위안을 찾으려는 마음상태를 ‘경쟁형’으로 분류한다. 탐닉형은 몰입형, 경쟁형은 자기구현(인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마음유형은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습성과 자아의식에 의해 자신의 자아 혹은 인성으로 굳어진 전형적인 마음자리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needs)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작용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처럼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이다. 그러나 욕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려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욕망(desire)이라 부른다. 지나친 욕망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마음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이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은 오랜 기간 자아로 고착된 자기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자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마음(자아의식)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욕구로 전환하는 조절능력을 갖추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욕구의 원인에 대한 발견과 지나친 욕망을 조절하기 위한 전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발견과 전환의 학습과정을 통해 자아가 강화된 사람, 즉, 참마음을 회복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다양한 수련과정을 거쳐 소통능력을 갖춘 관계지향적인 사람, 즉 몸과 마음, 언어 그리고 영성이 두루 균형 잡힌 사람을 지향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개인적 웰빙차원에 머물던 자아가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해 사회적 웰빙차원의 자아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단계적 구조를 알기 쉽게 도식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마음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나는 주로 어떤 마음상태에 머물러 있나?

둘째, 내가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마음유형별 프로그램의 설계를 세 단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을 통해 자아의식의 원인을 자각하는 ‘발견’의 단계이며, 두 번째는 부정적 욕구를 긍정적인 욕구로 조절하는 학습과정인 ‘전환’ 단계, 세 번째는 공동체의식의 증진을 목표로하는 타자와의 ‘관계’지향의 단계이다. 첫 단계인 발견의 단계는 인간의 오랜 기억과 경험들로 축적된 습성과 생각과 느낌 등으로 이루어진 자아의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단계이다. 한 사람의 인성 혹은 인격으로 굳어진 마음자리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대

한 분별능력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전환의 단계는 마음 조절능력을 기르는 학습단계이다. 이 단계는 마음유형별 프로그램 훈련을 통해 자아로 고착화된 마음, 즉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긍정적인 욕구 요인으로 전환하는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다. 때로는 사람들은 학습과정을 통해 자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각을 통해 또 다른 학습욕구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같은 전환단계를 거치면서 지식 차원을 넘어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되며, 본래의 마음자리인 참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관계지향의 단계는 일명 소통능력의 증진을 지향한다. 여기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의 치유를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비폭력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영성 발달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등과 같은 자아수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참마음을 회복한 인간은 드디어 개인적 웰빙 상태를 사회적 웰빙 상태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타인은 나와 다르게 이해하고 자각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과 대상을 서로 다르게 알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타인의 삶과 경험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견에서 전환까지의 단계는 주로 자신의 내면세계에 집중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전환에서 관계까지의 단계는 나와 너(공동체), 지역사회, 나아가서 자연과 지구적 차원으로까지 관계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특히, 관계지향적 인성형성을 위해서는 공감, 이해, 배려 등과 같은 소통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결론

이 연구는 마음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기초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마음그램(Maumgram)이란 기존의 분석심리학 및 유식학의 마음구조를 기반으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자리(탐닉형, 분노형, 경쟁형, 이기심형)로 유형화하고, 이를 위한 인성교육의 단계적 구조를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마음유형별 프로그램의 설계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을 통해 오랜 기억과 경험들로 축적된 습성과 생각과 느낌 등으로 형성된 자아의식을 자각하는 발견의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마음(자아의식)을 긍정적인 욕구 요인으로 조절하는 전환의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마음치유의 단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로까지 확장하는 타자와의 소통능력을 증진하는 관계지향적 과정이다.

인성은 정태성과 유동성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모형을 통해 개발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은 고착화된 개인의 자아가 인성교육에 의해 참된 인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아동의 개인적 자아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욕구로 조절 가능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6.

REFERENCES

- [1] Kim, Tae Hwan trans. Han Byung Chul, "Müdigkeitgesellschaft", pp.1-128, Literary and Intelligence Publishing Company. 2012.
- [2] Kim, Jeong Hyun, "Philosophy and Healing of Mind". Mind, Life and Religio. 2010 Spring Conference,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Won-Buddhist Thought, Wonkwang University. pp. 58-85, 2010.
- [3] Lew, Seung-Mu, "Deepening pain in our heart, shallowed Maumgongbu". Maumgongbu and Mindhealing looking for from the ancient Korean Classics. 10th Conference for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pp., 2012.
- [4] Gang, Sang Jung and Song, Tae Uk trans, "The Reason why to live", pp.1-201, Four Season Publishing Company, 2012.
- [5] Lee, Hong-Woo, "Theory of Curriculum", pp. 1-570,

Kyoyookkwahaksa. 2003.

- [6] Chang, Sung-Mo. "The Two-Fold Structure of Mind and Religious Meaning of Education". A Study on the Moral Education. Vol.17, No1, pp. 223-243. 2005.
- [7] Peters, R. S, "Ethics and Education", Gerorge Allen & Unwin. Lee, Hongu trans. pp.378, Kyoyookkwahaksa. 2003.
- [8] Lee, Hyo Bum(1993). "Structure of Mind", Association for Research on supernatural Phenomenon, Gong Ju National University, Vol.1, pp.92-118, 1993.
- [9] Cheon, Seong Moon and Jang, Jeong Hee, "Comparative Study for Structure of Mind between Yogakara Buddhism and Analysis Psychology". Korean Kournal of Counseling, Vol.5, No. 4, pp.1267-1279, 2004.
- [10] Cheon, Seong Moon and Jo, Sang Hee, "Psychiatrical Structural Comparison between Psychoanalysis and the Study of Yogacara Buddhism". Korean Kournal of Counseling, Vol. 4, No. 1, pp.167-178, 2003.
- [11] Seokwang, "Reading Yogakara Buddhism to heal", pp.1-303, Space Publishing Company. 2013.
- [12] An E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Taeseung Kieshin Non So Gihoebon 1", pp.1-744, Dongguk University Press. 1998.
- [13]Woo, Chung Hee trans, "Taeseung Kieshin Non So · Byelkie of Wonhyo", pp.1-747, Ilji Publishing Company. 1991.
- [14] Lee, Hong-Woo, "Translation of Text and Taeseung Kieshin Non Interpretation with footnote",pp. 1-69, Kimyeong Publishing Company. 2006.
- [15] Kwon, Eun-Joo and Shin, Yang-jai, "A Study on Taeseung Kieshin Non So · Byelkie i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Focused on the Process and the Principles of Knowing",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3, pp. 123-148, 2012.
- [16] An, Kwan Su trans.(2006). "MacKinnon, Barbara: Ethic", pp. 12, Jaedong Publishing Company. 2006.

안 관 수(An, Kwan Su)



- 1986년 8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디지털인문융합연구
- E-Mail : ksan@wonkwang.ac.kr